

[로스쿨 합격기]

## 실질객관합격수기

### 배 상 현

- 대구 대건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재학중



### I. 들어가며 : 제목의 의도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고민하였던 부분이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나름 열심히 고민한 인고(忍苦) 끝에 제목을 <실질객관합격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몇몇 독자들께서는 ‘열심히 고민한 제목이 이것밖에 안되냐?’라고 비판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것이 필자의 표현력의 한계이며 의도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다고 하여서 이전에 고시계(考試界)에 올라온 합격수기들이 실질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이번 합격수기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그 독자들이 현실에 맞게 잘 준비하여 합격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제목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합격수기를 적어나가겠습니다.

## II. 무시할 수 없는 현실 : 학 별(學閥)

현실을 알리고 싶은 필자의 의도에 맞게, 제일 먼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도 학벌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 5일자 한국대학신문 기사에 따르면, 4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 입학생이 67%에 육박한다고 합니다.<sup>1)</sup> 현재 학벌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학벌을 타파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학벌은 부정할 수 없는 지원자 평가 요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학교 출신을 보는 이유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시절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벌을 따진다고 하여 지방대 출신 독자들은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자 역시 지방대 출신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벌 외에도 다른 만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학벌이 입학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 III. 대학생활의 성실도 : 학 점

최근 학점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학점을 믿지 않는다고 하고 심지어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대학교마저도 학점의 신빙성을 의심한다는 기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학점은 여전히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니 학점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도 학점은 중요합니다.

학점은 지원자의 대학생활 성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수강 또는 재이수라는 제도로 인하여 학점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재수강이나 재이수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대학교 4년동안 좋은 학점을 유지하는 것은 그 학생이 성실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학벌이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학점은 대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학벌이 좋지 못하다면 학점을 통하여 만회를 해야 하고 학벌이 좋다고 하여 학점을 포기한다면 성실하지 못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나저러나 학점을 잘 유지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학점이 안정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다익선

1) 한국대학신문, “로스쿨 입학생 수도권 출신 67%”, 2012.10.05

(多多益善)이라는 말처럼 학점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지방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벌을 본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학점관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학점관리를 위해서는 벼락치기보다는 평소에 공부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두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한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하여도, 벼락치기보다는 평소에 공부해 놓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다니며 친구들과 노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평소에 공부를 해놓는 습관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점을 잘 받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허탈해야하는 독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알려주고 싶지만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이 학점 받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점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IV. 맹신하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기준 : 토익·토플·텡스 점수

지원자의 영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지원자의 토익이나 토플, 텡스점수를 봅니다. 토익, 토플, 텡스점수가 높다고 하여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원자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영어능력을 측정할 다른 기준이 마땅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지원자의 토익, 토플, 텡스점수를 봅니다. 필자는 토플, 텡스가 아닌 토익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토익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익은 학점과 달리 벼락치기가 가능하는 점에서 단기간 안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학을 하든 학원을 다니든 공부방법을 알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자는 학교 어학당에서 하는 토익 수업을 1달 간 수강을 하였습니다. 1달 동안 수업을 듣고 공부방법을 습득한 후에는 독학을 하였습니다.

RC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많이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풀어도 꼭 해야 합니다. 문제의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므로 맞춘 문제도 풀이를 하여 완전히 알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단어장에 옮겨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단어를 외웁니다. 시중에 파는 단어장을 사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필자는 스스로 단어장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RC 문제를 푸는 것에는 스킬이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느 부분에 주어, 형용사, 부사, 명사가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는데 그 때는 문장을 해석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LC는 많이 듣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소위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은 문제에 등장하는 단어를 모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익숙해지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필자도 RC보다 LC 점수가 낮아서 고민을 했었으나 학교 어학당 수업을 들으며 LC 공부방법을 알면서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운 방법이면서 필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디테이션과 웨도잉이 있습니다. 디테이션은 문장을 듣고 받아적는 방법이고 웨도잉은 문장을 여러 번 듣고 외워서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방식은 참으로 귀찮고 괴롭고 하기 싫은 공부방법이지만 그렇게 몇 주 또는 몇 달을 하고 나면 영어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방학동안 쉬는 시간을 뺀 순수 공부시간으로 LC공부를 하루에 4시간씩 하였고 RC공부는 2시간씩 공부하였습니다. 4시간 동안 디테이션, 웨도잉을 하면 짜증이 나는 때도 있지만 참아야 합니다. 물론 이는 필자와 같은 영어초보자에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으나 LC 점수가 안 오른다면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점수에 관하여 다수설은 900점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부 합격자 중에는 800점대의 토익점수를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기수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경쟁자들의 스펙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900점 이상을 맞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 V. 법학적성시험 : 리 트(LEET)

LEET란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하면 법학적성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학적성시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리트점수에 따라 지원자의 법학적성능력을 파악합니다. 학교에 따라 리트점수의 반영비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리트점수의 반영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앞에서 말한 학벌, 학점, 영어점수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트점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트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으로 구성이 됩니다.(논술문제도 있지만 논술에 대하여는 후술하겠습니다.) 언어이해는 긴 글과 그에 대한 객관식 문제가 제시되고 그 글을 읽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형식은 수능 언어영역 시험과 같다고 보면 되지만 당연히 언어이해가 수능 언어영역 시험보다 어렵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제시문이 등장합니다. 경영, 경제, 법학, 예술, 음악, 과학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등장하는데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이 있다고 하여 그 분야의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이해 점수는 문제집을 많이 풀거나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고 대체로 제일 처음 쳤던 리트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리트 점수와 일치하게 됩니다. 평소에 글을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늦기 전에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추리논증은 긴 제시문이 아닌 짧은 문장 안에서 정답을 도출하거나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언어이해와 달리 추리논증은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영역인데 필자 역시 추리논증에서는 공부를 하여 점수를 올렸습니다. 추리논증은 풀다 보면 문제 푸는 방법을 알게 되고 문제가 익숙해져서 처음 문제를 푼 점수보다 점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트공부를 하면서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문제를 풀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필자도 많이 풀어보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리트시험은 여러 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오답률이 낮은 반면에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문제는 학원 강사 개인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고 문제를 풀다보면 그 정답에 수궁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학원 강사 문제를 풀다보면 헛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리트 기출문제나 Meet, Deet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리트 점수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려던 친구가 변심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2주를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1년을 공부한 필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씩씩한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리트 공부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 VI.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중 : 논술

리트시험에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이외에 논술도 있습니다. 논술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에 비하여 반영비율이 낮습니다. 반영비율이 낮지만 논술도 당연히 준비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시간과 분량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논술 준비는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쓰기만 해서 안 되며 글을 쓴 후에는 첨삭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 스터디를 구성하여 스터디 원들끼리 시간을 정하여 논술문제를 풀어보고 서로 첨삭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사람

들은 리트 논술 학원에 등록하여 첨삭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논술 학원 동영상 강의를 들었지만 동영상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은 강의를 맹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학원 강의에서는 1000자 문제 1문제, 800자 문제 1문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제4회 리트 논술에는 3문제가 등장하였고 학원 강의에서 듣지 못한 연설문 작성이 등장하였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쓰는 방법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정도는 논술교재를 구매하여 알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써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VII. 입학의 마지막 관문 : 면접

위의 사항들을 모두 갖춘 후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면접이 남게 됩니다. 서류심사에서 검토한 리트점수, 영어점수, 학점 등으로는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나 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법학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성도 매우 중요하므로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인성을 평가합니다. 물론 면접에서는 인성뿐만 아니라 표현력이나 화술도 봅니다. 아무리 리트점수, 영어점수, 학점 등이 좋다고 하여도 말하기 능력이 떨어지거나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교수님께서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이니 면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리트점수, 영어점수, 학점이 상대 지원자에 비하여 좋지 못하다면 면접을 통하여 역전을 하면 됩니다. 분명 입시설명에 나타난 면접의 비중은 수치상 낮게 나타나있겠지만 지원자가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뽑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면접 준비는 혼자하는 것보다는 리트시험을 본 후에 스터디를 조직하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마다 면접방식이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같은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조직하면 더 좋습니다. 스터디 방식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요구하는 면접방식에 따라 스터디원들끼리 지원자와 면접관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노크, 문 열기, 의자에 앉기, 문제읽기, 발언, 질문, 공격과 방어 등 실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스터디를 해야 합니다. 스터디 인원은 7-8명이 적합합니다. 인원이 너무 적을 경우 누군가 결석을 하면 스터디를 진행할 수 없고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입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존엄사, 간통, 여성

근복무제 등 과거에 논란이 많은 사례도 등장하므로 최근의 사회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 VIII. 기타 사항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도 사회경력이나 자격증, 봉사활동, 수상경력 등은 가산 점부여의 요소가 되므로 공부를 하면서도 봉사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사회경력이 없었으나 봉사활동시간이 많았고 수상경력도 존재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가산점부여의 요소가 될 뿐이지 중점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격증 중에서도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은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됩니다. 직장에 다니다 온 지원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있으나 직장에서의 근무기간도 좋은 평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곱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나이는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2012년 03월 16일자 법률저널의 기사를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 연도별 연령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2)</sup>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법학전문대학교 측에서 젊은 지원자들을 선호를 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합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지원자들에게 없는 다양한 경험을 어필한다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IX. 글을 마치며

글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현실을 제대로 잘 전달해준건가?’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시작은 거창하였으나 정작 본문에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의 전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준비할게 많다거나 입학하기가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놀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필자는 머리가 똑똑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필자와 같이 머리가 좋

2) 법률저널, “올해 로스쿨입학생, 젊어졌다”, 2012. 03. 16

지 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단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진정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꼭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와 그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두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많이 부족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